

사찰안내 오류·왜곡 많다

“용어 어렵고·안내자료 부족 탓... 이해 못한 채 해설하는 경우도”
문화관광해설사·사찰 포교사 249명 대상 설문, 불교소양교육 필요

경북 A사찰의 문화관광해설사 김 씨. 김씨는 최근 사찰 안내를 하다가 관광객이 ‘다라니(陀羅尼)’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자신도 그 뜻을 정확하게 몰라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다.

전남 B사찰의 문화관광해설사 이 씨. 이씨는 극락전 행화를 설명하던 관광객의 항의를 받았다. 아마도 극락회상도를 잘못 설명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지를 찾아오는 국내의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찰에서 해설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불교용어의 난해함’을, 사찰 안내 포교사는 ‘안내자료 부족’을 꼽았다. 또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 모두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찰소재 자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응답했다.

문화 즉 스님들의 수행생활, 사찰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해설사 50.4%(65명)가 불자였지만 무종교인도 14.7%(19명), 개신교 및 가톨릭 신자도 각각 11.6%(15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함을 보였다.

문화관광해설사 79.1%(102명)과 포교사 82.0%(187명)는 종단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할 경우 ‘불교

해설사 주말과 주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했지만, 포교사 85.8%(103명)는 주말에 주로 활동했다. 이 같은 차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 모두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포교사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 신행 활동 차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관광해설사 36.4%(47명), 포교사 25.8%(31명)가 해설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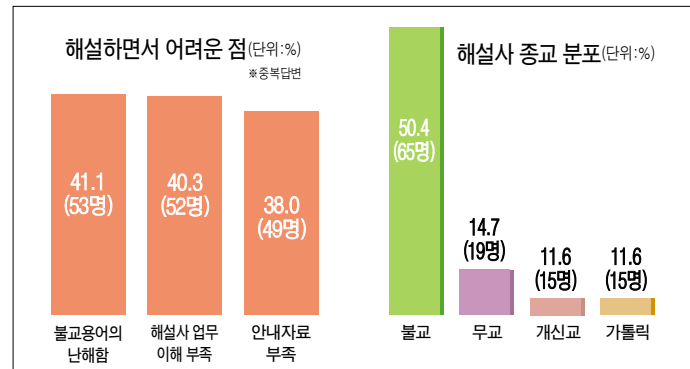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문화재 설명에만 그치거나, 심지어는 왜곡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찰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구본부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를 지역별로 네트워크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종교적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가운데 일정한 불교소양교육을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또한 ‘불교문화의 이해’ 시간 편성 등 불교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정제화할 필요가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은 “사찰 안내 및 해설은 포교의 기본”이라며 “포교 일선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포교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교연구실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교재 <불교문화해설 길라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문화재의 이해(불교미술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연수 적정시간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2~4일(46.5%, 60명)에 가장 많은 답을 했지만, 포교사는 1일(4시간)이 35.0%로 가장 많아 문화관광해설사가 포교사보다 장시간 교육·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설안내문(편) 개선방향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포교사 모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월평균 10.6일, 포교사는 5.3일 활동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70.1%가 하루 6~8시간 또는 8시간 이상 활동했지만, 포교사는 10%가 이에 해당했다. 문화관광

문화재의 이해(불교미술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연수 적정시간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2~4일(46.5%, 60명)에 가장 많은 답을 했지만, 포교사는 1일(4시간)이 35.0%로 가장 많아 문화관광해설사가 포교사보다 장시간 교육·연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설안내문(편) 개선방향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포교사 모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술’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위용 드러내

한국불교문화의 전통을 계승 보존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이 2004년 기공 후 3년만에 완공돼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사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전승관에서는 앞으로 다도와 영산재 등 전통문화 체험 및 시연, 전통불교문화교육, 종무행장, 전사공연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상 3층에 들어선 법당은 전통문화전승과 태고종의 단결을 위한 기도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1일 태고종 총무원 이진을

관원기사 8명·사진=박재원 기자

‘종교단체에 후원’ 21.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만이 최근 1년 동안 후원(기부)금을 낸 경향이 있고, 후원인구 1인당 평균 횟수는 4.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월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12월 4일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분석결과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후원금을 낸 대상자는 사회복지단체가 43.3%로 가장 높았고, 언론기관 28.8%, 종교단체 21.3%, 기업(직장) 15.3% 순이었다. 또 여성(29.1%)보다는 남성(34.3%)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후원인구 비율이 높았다.

생활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은 31.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박봉영 기자

강원 교육 ‘현대화 옷 입기’ 시도

해인사, 교과과정·교육시간 등 대폭 개편...“신중해야” 우려도

합천 해인사 승가대학이 경장교과목 중심의 교육에서 경륜론 삼장에 대한 바른 인목을 두루 갖추는 교육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한다. 또 전통교과와 현대교과를 병행하고, 교육시간 또한 기존 1교시 80분 강의에서 2교시 160분 강의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치문-사집-사교-대교 반으로 구분됐던 학제도 1-2-3-4학년 편제로 바꿀 계획이다. 해인사는 12월 4일 청화당에서 제7차 인회를 개최하고 승가대학 교과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교과 개편안의 특징은 <서장> <선요> 등 선어록은 핵심내용만 간추리고 아비달마 중론 유식 등 경륜론 삼장을 골고루 교과목으로 편성시킨 것이다. 또 불교사와 불교문화수행법 외국어 등 현대 교과목을 강화했다. 특히 외국어는 전학년에서 걸쳐 시행된다.

교수진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과목별로 스님 교수사나 대학 교수 및 강사 등을 초빙할 계획이다. 출석 20%, 수업태도 20%, 과제물 20%, 시험 40% 등으로 교육평가도 실시한다.

해인사는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 9월 10일부터 종진(해인총림 울주), 지인(조계종 승가대학원장), 현웅(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종묵(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재연(실상사 승가대학 교수), 종림(교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흥선(지지사 강주), 경성(중앙승가대 강사), 명범(문운사 승가대학 교수), 원목(실상사 화엄학팀), 도현(해인사 교무국장) 스님 등 16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모임을 6차례 걸쳐 가졌다.

해인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현웅 스님(해인사 주지)은 “해인사 강원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조계종 교육원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해인사의 방향설정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전통강원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교육원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해인사만의 실험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강원교직자협의회장 우진 스님도 사견을 전제로 “변화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조계종 교육의 큰 틀에서 볼 때 개별사찰 차원에서의 추진은 이념적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직자협의회는 12월 16일 회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시방세계 9면
마곡사 시민선방 동안거 결제

봉선사 강설대법회 결산 4면
CEO 사찰서 만나다

구자선 ‘자연과 사람’ 회장 10면
‘마이클 주’의 작품세계 23면
화장품 유통기한 주의를 27면

도반의 향기 17면
사찰음식 배우는 दिन 지이 군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경주 죽림정사 주지 송암 스님

보이차 홍차원
친년보이차·진품차사 초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아름다운 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 (등포 조정 작동) 연동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봉축전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법당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